

#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및 자살생각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이은숙<sup>1</sup> · 봉은주<sup>2</sup>

<sup>1</sup>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Influence of Alcohol Outcome Expectanc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Lee, Eun Sook<sup>1</sup> · Bong, Eun Ju<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Nursing Departmen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Nursing, Chonnam Techno University, Jollanamdo,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lcohol outcome expectanc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n problematic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descriptive survey design. Participants were 205 college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Jeollanamdo.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0 to March 25 in 2014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9.0. **Results:** Of the participants, 57.6% were in problem drinking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lcohol outcome expectancy, depression and problematic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However, suicidal ideation was not correlated with problematic drinking. It was also found that alcohol outcome expectancy, low academic performance and depression influence on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These variables did not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problem drinking preven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decrease alcohol outcome expectancy and regulate negative emotions such as depression, in order to prevent problematic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Drinking, Depression, Suicide, College student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의 과도한 음주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지고 있다. 대학생 시기의 음주문제는 과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려 학업수행, 정신건강, 사회적문제를 유발하는(Baker, 1998) 문제음주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폭음이나 과음은 성인으로 이어져 문제 음주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Jeong, 2006).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

sociation, 1994)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문제를 알코올남용과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내리고 있는데, 알코올남용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나 사회적, 직업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장애가 나타난 경우이고, 알코올의존은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중독 증상인 내성, 금단증상, 강박적 사용으로 음주조절능력의 상실로 전반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 직업적인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음주는 '알코올중독'과 같은 병리적이고 낙인이 강한 용어를 대신하여 사용하며, 과음이나 폭음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학업적)인 문제와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상의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주요어:** 음주, 우울, 자살, 대학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Bong, Eun Ju

Nursing Department, Chonnam Techno University, 113 Daehang-ro, Okgwamyeon, Gokseong 516-911, Korea  
Tel: +82-61-360-5328 Fax: +82-61-360-5331 E-mail: b-e-j@hanmail.net

투고일(date received): 2014년 9월 24일 심사완료일(data of review completion): 2014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date accepted): 2014년 11월 29일

의미한다.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연간 음주율은 94.4%로 성인의 연간 음주율 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자리에서 4-5잔 이상을 마시는 폭음률은 71.3%, 이런 위험음주를 2주 동안 1-2회 경험한 수시 폭음자가 42.3%, 3회 이상 경험한 상습 폭음자가 28.9%인 것으로 나타났다(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2010). 미국의 대학생의 경우도 2주 동안 1회 폭음자가 40%로, 3회 이상의 폭음자는 26% 정도로 나타났으며, DSM-IV 진단기준에 따르면 32%가 알코올남용, 6%가 알코올의존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O'Malley, Bachman, & Schulenberg, 2009).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음주결과기대(Alcohol outcome expectancy)가 제시되어왔다(Brown, 1985; Cho, 2000; Goldman, Brown, & Christiansen, 1987; Han, Lee, & Shin, 2005; Lee & Choi, 2010; Park, 2008). Brown (1985)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있지만, 특히 음주결과기대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고 강조하였다. 음주결과기대는 술을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으로, 실제 음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역할모델이나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 발달하기 시작하여,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초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획득되며, 장기기억에 저장된다(Goldman et al., 1987). 선행연구들은 음주결과기대가 음주의 시작과 유지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며, 음주량과 빈도, 폭음과 관련성이 높으며,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문제음주나 알코올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써 보고하였다(Brown, 1985; Cho, 2000; Goldman et al., 1987; Han, Lee, & Shin, 2005; Lee & Choi, 2010; Park, 2008). 즉, 대학생들은 음주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완되며, 사회적인 자신감이 증가되며, 힘과 공격성이 증가되고 성적으로 나온 경험을 할 것이라는 음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 더 많이 음주하게 되고, 결국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Cho, 2000; Park, 2008).

대학생들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대처하기 위해 음주하는 경우가 많고(Cooper, Fron, Russell, & Mudar, 1995), 대학생의 문제음주는 알코올이나 약물의 남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기통제가 힘든 상황에서는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Tapert et al., 2003). Gliman과 Abraham (2001)의 연구에 따르면 폭음하는 경우 우울증이 될 가능성이 2-4배 증가하며 알코올중독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3.7%나 된다고 보고하였다. Chung (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이 스트레스 유발사건과 함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울과 함께 자살생각은 대학생들이 폭음을 하고 음주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nzalez, 2012; Shaffer, Jeglic, & Stanley, 2008).

폭음의 경력이 있는 대학생들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하며(Shaffer, Jeglic, & Stanley, 2008), 특히 자살생각이 높거나 자살시도 경력이 있는 경우에 혼자서 음주를 하며, 폭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Gonzalez, 2012). 선행연구에서 우울이나 자살생각이 문제음주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 변수들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함께 우울이나 자살생각이 문제음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학생 음주문제와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학생 음주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문제음주 가족력,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과 음주결과기대나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사용하여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Han, Lee, & Shin, 2005; Jeong, 2006; Lee & Choi, 2010; Park,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사회적 변수들 중에 음주결과기대와 함께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문제음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규명하여, 대학생 문제음주를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문제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과 자살사고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문제음주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자살생각,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및 자살생각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및 자살생각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14년 10월부터 3월 25일까지 전남지역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다중회귀분

석을 위한 표본수는 effect size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로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129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15명을 편의표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각 학과의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에게만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참여자에게는 연구자들이 준비한 소정의 보상(3색 형광펜)을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15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 기재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205명(95.3%)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음주결과기대

음주결과기대는 Annis (1985)가 개발한 음주에 대한 긍정적 결과기대 23문항과 부정적인 결과기대 18문항으로 구성된 총 41문항의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Kim (1996)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기대 23문항을 사용하였다. Kim (1996)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성인인 대학생들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설문을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기대는 주로 알코올이 주는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며,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로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im (1996)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였다.

#### 2) 우울척도

우울은 Beck, Ward, Menderson, Mock과 Erbaugh (1967)가 제작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Lee 와 Song (1991)이 번안하여 사용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총 문항수는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21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0-3점의 점수범위에 있으며 전체점수의 범위는 0-63점이 된다. BDI 점수에 따라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경한 우울상태, 16-23점은 중한 우울상태, 24-63까지는 심한 우울상태로 분류된다. Lee와 Song (1991)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5$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3)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Beck, Kovacs와 Weissman (1979)의 자살생각 척도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를 Park과 Shin (1990)이 자가 보고형 질문지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총 문항 수는 19문항으로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자살의도가 심한 경우가 2점, 보통인 경우가 1점, 없는 경우가 0점에 해당된다. 총점은 0-3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 (1992)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4) 한국형 문제음주척도

문제음주는 WHO가 알코올의존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자의 초기 확인을 위해 개발한 간단한 문제음주척도인 AU-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DIT)를 Lee, Lee, Lee, Choi와 Namkoong (2000)이 번안하여 타당도 검사를 마친바 있는 AUDIT-K를 사용하였다. AUDIT-K는 총 10문항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음주빈도와 음주량, 알코올의존 증상, 음주관련 문제의 3영역으로 구성되었다. 8문항은 5점 척도(0-4점), 2문항은 3점 척도(0점, 2점, 4점)이며 점수의 범위는 0-40점이다. 안전한 음주로 정의되는 양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현재는 8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0-7점이면 정상, 8-19점이면 상습적 과음자로 주의가 필요, 20-24점은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 요구되고, 25점 이상은 알코올 중독자로 전문적 입원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자로 구분한다. Lee 등 (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정을 위한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에서 채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음주 및 우울의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Duncan test를 하였다. 대학생의 문제음주, 음주결과기대,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고, 음주결과기대, 우울, 자살생각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학생의 문제음주, 우울, 자살생각과 음주결과기대의 정도

대학생 중 상습적 과음주자(AUDIT-K 8-19점)는 43.9% (90명)이었으며, 전문적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중독자(AUDIT-K 20점 이상)는 13.7%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정도는 가벼운 우

울상태(BDI 10-15점)가 13.7% (28명), 중한 우울상태(BDI 16-23점)가 12.2% (25명), 심한 우울상태(BDI 24-63점)가 5.4%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대상자 중 문제 음주자는 57.6%였고, 31.3%가 우울 상태였다.

대상자의 문제음주 총점은 10.15점으로 상습적 과음의 수준이었고, 우울 총점은 7.40점으로 정상 수준이었다. 자살생각의 총점은 2.89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음주결과기대는 23.6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Table 1).

**2.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교성적( $p=.003$ )과 친구 수( $p=.004$ )였다. 학교성적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상 집단(9.10점)과 중 집단(9.97점)에 비해 하 집단(14.56점)의 문제음주 평균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F=5.83, p=.003$ ). 친구 수의 경우 전혀 없다는 집단(21.25점)이 1-2명 (7.71점), 3-4명(10.23점), 5명 이상(11.24점)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57, p=.004$ ) (Table 2).

**3.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자살생각,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음주는 음주결과기대와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r=.41, p<.001$ ), 우울과 약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으며( $r=.17, p=.013$ ), 자살생각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결과기대는 우울 및 자살생각과 상관성이 없었고, 우울과 자살생각은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r=.68, p<.001$ ). 즉 음주결과기대와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정도가 높고,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정

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Table 3).

**4.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및 자살생각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52(.96), 분산확대인자(VIF)는 1.03-1.9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82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만족하였다.

대학생의 문제음주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 변수를 모두 입력하고, 대상자의 특성 중 유의수준  $p<.01$ 에서 문제음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성적(상=0, 중=1, 하=2)은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친구 수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전혀 없다' 집단의 표본수가 4명(2%)으로 통계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음주결과기대, 우울, 성적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p<.001$ ), 자살생각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6%였다. 대학생의 문제음주 영향 요인으로 가장 결정력이 큰 것은 음주결과기대( $\beta=.44, p<.001$ )였고, 다음으로 낮은 성적( $\beta=.21, p=.011$ )과 우울( $\beta=.17, p=.043$ )이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음주 수준을 파악하고 음주결과기대, 우울, 자살생각, 문제음주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 문제음주를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문제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음주문제 정도는 AUDIT-K 점수가 0-7점인 정상음주자가 42.4%, 8-19점이 상습적 과음주자가 43.9%, 20점 이상인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중독자가 13.7%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AUDIT-K가 8점 이상인 문제음주 대학생이 57.6%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조사한 Jeong (2006)의 연구에서 52.2%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Nam (2009)의 연구에서 70.2%, Park (2008)의 연구에서 71.8%로 나타난 것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문제음주자이며, 10명 중 약 1.4명 정도가 심각한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음주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들 (Jeong, 2006; Nam, 2009)에서 지적했듯이 대학시절의 문제음주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알코올중독으로 성인기에 진행할

**Table 1. Scores of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and related Variables (N = 205)**

Variables	Categories	Score	n (%)	Range	Mean (SD)
Problem drinking (AUDIT-K)	Normal	0-7	87 (42.4)	0-36	10.15 (7.09)
	Problem drinker	8-19	90 (43.9)		
	Potential alcoholics	≥ 20	28 (13.7)		
Depression	Normal	0-9	141 (68.8)	0-63	7.40 (8.39)
	Mild depression	10-15	28 (13.7)		
	Moderate depression	16-23	25 (12.2)		
	Severe depression	24-63	11 (5.4)		
Suicidal ideation				0-38	2.89 (4.94)
Alcohol outcome expectancy				0-50	23.64 (12.50)

**Table 2.** Differences of Problem Drink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205)

Characteristics	Division	n (%)	Mean (SD)	t/F (p)
Sex	Male	140 (68.3)	11.06 (7.87)	1.43 (.156)
	Female	65 (31.7)	9.46 (6.59)	
Grade	1st	91 (44.4)	9.93 (7.60)	1.25 (.294)
	2nd	59 (28.8)	11.93 (7.70)	
	3rd	35 (17.1)	9.37 (6.16)	
	4th	20 (9.8)	11.40 (8.49)	
Religion	Have	82 (40.0)	11.04 (7.50)	0.75 (.456)
	Have not	123 (60.0)	10.24 (7.54)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7 (3.4)	14.29 (11.43)	1.51 (.222)
	Middle	158 (77.1)	10.13 (6.77)	
	Low	40 (19.5)	11.60 (9.30)	
Housing	Home with parents	100 (48.8)	9.28 (6.16)	2.90 (.058)
	Self-boarding	48 (23.4)	11.58 (8.88)	
	Boarding house	57 (27.8)	11.93 (8.17)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sup>a</sup>	31 (15.1)	9.10 (5.99)	5.83 (.003)* a < c, b < c
	Middle <sup>b</sup>	142 (69.3)	9.97 (7.29)	
	Low <sup>c</sup>	32 (15.6)	14.56 (8.63)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Satisfactory	121 (59.0)	10.29 (7.77)	0.20 (.818)
	Usually satisfactory	67 (32.7)	11.01 (7.34)	
	Unsatisfactory	17 (8.3)	10.65 (7.51)	
	Very unsatisfactory	4 (2.0)	8.25 (7.37)	
Friendship satisfaction	Satisfactory	157 (76.6)	10.82 (7.78)	0.50 (.610)
	Usually satisfactory	44 (21.5)	9.82 (6.59)	
	Unsatisfactory	4 (2.0)	8.25 (7.37)	
	Very unsatisfactory	4 (2.0)	21.25 (15.31)	
A number of friends	0 <sup>a</sup>	4 (2.0)	21.25 (15.31)	4.57 (.004)* a > b, c, d
	1-2 <sup>b</sup>	28 (13.7)	7.71 (6.18)	
	3-4 <sup>c</sup>	81 (39.5)	10.23 (6.63)	
	≥ 5 <sup>d</sup>	92 (44.9)	11.24 (7.80)	
	≥ 20	21 (10.2)	10.29 (7.25)	
First drinking age (yr)	≤ 13	10 (4.9)	11.80 (5.45)	0.83(.482)
	14-16	50 (24.4)	11.84 (7.92)	
	17-19	124 (60.5)	9.98 (7.53)	
	≥ 20	21 (10.2)	10.29 (7.25)	
	≥ 20	21 (10.2)	10.29 (7.25)	
Perception about drinking problem severity	Severe	65 (31.7)	9.23 (6.74)	1.58 (.209)
	Moderate	121 (59.0)	11.07 (7.49)	
	No problem at all	19 (9.3)	11.84 (9.70)	
Participated experience in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Yes	51 (24.9)	10.63 (6.88)	0.08 (.938)
	No	154 (75.1)	10.53 (7.73)	
Professional help needs	Yes	24 (11.7)	11.13 (8.78)	0.39 (.694)
	No	181 (88.3)	10.48 (7.35)	

\**p* < .05 by Duncan test.

**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Problem Drinking, Alcohol Outcome Expectancy,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N = 205)

Variables	X1	X2	X3
X1 Problem drinking	1		
X2 Alcohol outcome expectancy	.41 (<.001)	1	
X3 Depression	.17 (.013)	.10 (.140)	1
X4 Suicide ideation	.04 (.596)	-.00 (.974)	.68 (<.001)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학교성적, 친구 수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하위인 집단이 중이나 상위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가 전혀 없는 경우가 친구 수가 1-2명, 3-4명, 5명 이상인 집단보다 훨씬 문제음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Jeong (2006)의 연구와 Park (2008)의 연구에서도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이 문제음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친구 수에 따라 문제음주의 정도가 차이가 나타난 것은 Jeong (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Jeong (2006)의 연구에서는 음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문제음주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구 수가 1-2명인 경우는 문제음주 정도가 7.71이었으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1.2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친구가 없는 경우에 문제음주 정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f Problem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N = 205\*)

Variables	B	$\beta$	t	p	Adjusted R <sup>2</sup>	F (p)
Constant	-0.95	-	-0.41	0.679	0.26	14.76 (<.001)
Alcohol outcome expectancy	0.26	0.44	7.01	<.001		
Depression	0.15	0.17	2.04	0.043		
Suicidal ideation	-0.12	-0.08	-0.96	0.337		
Middle academic performance <sup>†</sup>	0.99	0.06	0.77	0.444		
Low academic performance <sup>†</sup>	4.22	0.21	2.56	0.011		

\*Sample size after listwise deletion analysis; <sup>†</sup>Dummy variables (academic performance: High = 0, Middle = 1, Low = 2)

도가 21.2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인 친구관계에서 주로 음주하고 있고, 친구가 많을수록 문제음주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친구가 없이 혼자 음주하는 경우에는 문제음주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문제음주가 높게 나타났고(Jeong, 2006; Nam, 2009; Park, 2008), 최초 음주연령이 낮을수록(Jeong, 2006),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문제음주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ark, 2008),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음주결과기대, 우울,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음주는 음주결과기대와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우울과 약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자살생각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음주가 음주결과기대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Han et al., 2005; Lee & Choi, 2010; Nam, 2009; Park, 2008)과 일치한 결과이며, 우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Chung, 2008; Yoon & Lee, 2012)과도 일치한 결과이다. 그러나 문제음주가 자살생각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결과(Gonzalez, 2012; Shaffer et al., 2008; Yoon & Lee, 2012)와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음주결과기대는 우울 및 자살생각과 상관성이 없었고, 우울과 자살생각은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음주결과기대가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선행연구와 비교할 수 없었고,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강한 상관성은 선행연구(Yoon & Lee, 2012)와 일치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이 음주결과기대가 높고, 우울이 높은 경우에 문제음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울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살생각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음주결과기대가 가장 결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낮은 성적과 우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음주결과기대가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제시한 선행연구들과(Brown, 1985; Goldman et al., 1987; Han et al., 2005; Lee & Choi, 2010; Park, 2008)과 일치한 결과이다. 즉, 대학생들은 음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경우에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음주결과기대는 아동기부터 서서히 발전하여 청소년기를 거쳐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성인이 된 대학생의 시기에는 과음과 폭음으로 이어지게 하고, 심각한 음주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Goldman et al., 1987). 따라서 대학생 문제음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결과기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아동·청소년기를 거쳐 이미 음주결과기대가 형성되어 있어 기존의 일회성의 예방교육의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결과기대 다음으로 낮은 학업성적은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업성과 문제음주와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학생들의 문제음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영향력은 가장 적지만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서 보고한 선행연구들(Chung, 2008; Harrell, Slane, & Klump, 2009; Yoon & Lee, 2012)과 일치한 결과이다. 즉, 우울한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대학생일수록 문제음주의 위험성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과 문제음주가 복잡한 인과관계로 얽혀있어 이들 변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Harrell 등(2009)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우울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라고 보고하여 성적인 차이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68.3%로 상대적으로 높아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Cooper 등(1995)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면 음주에 대한 대처동기가 증가하여 음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우울과 문제음주 사이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음주 대처동기와 같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우울과 문제음주와의 관

계에서 성적인 차이나 음주대처동기와 같은 매개변수의 효과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은 평균 2.89점(점수범위, 0-38)으로 매우 낮아, 자살생각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Gonzalez, 2012; Gonzalez & Hewell, 2012; Shaffe et al., 2008)와 상반된 결과이다. Gonzalez와 Hewell (2012)에 따르면 자살사고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조절하기 위해 음주하고자 하는 대처동기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Gonzalez (2012)는 자살생각이 높고 자살시도 경력이 있는 대학생들은 주로 사회적 상황에서 음주하기보다 혼자서 폭음을 하는 것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과음이나 폭음으로 이어져 문제음주를 하고 있으며,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혼자서 음주를 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친구 수에 따라 문제음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단지 4명(2%)만이 친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사회적 관계에서 음주하기보다 혼자 폭음하게 되므로 친구 수가 5명 이상인 집단보다 훨씬 문제음주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과 문제음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이런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사이에 음주대처 동기와 같은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음주하는 경우와 혼자 폭음하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와 자살생각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지역 소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고,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한 결과이므로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와 관련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문제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음주문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음주결과기대 외에도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강조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문제음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방교육 차원에서 일회성의 교육이 아닌, 음주결과기대를 감소시키는 전략과 함께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처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간호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 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음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차원의 음주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며, 대학 내 동아리 활동이나 동료관계, 선후배 관계에서 음주가 아닌 다양한 놀이문화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절주동아리 등을 통해 음주문제에 대한 예

방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및 자살생각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57.2%가 문제음주자로 나타났고,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 정도는 학교성적이 낮고 친구 수가 없는 경우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자살생각과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제음주는 음주결과기대와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우울과 약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자살생각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주결과기대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성적과 우울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살생각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결과기대를 감소시키는 전략과 함께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처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문제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nis, H. M. (1985). Outcome expectancies questionnaire. In D. J. Lettieri, J. E. Nelson, & M. A. Sayers (Eds.), *Alcoholism treatment Assessment research. instruments* (pp.36-39). MD: NIAAA.
- Baker, T. K. (1998). *An examination of college students motives and self-regulative strategies for limiting drinking*.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Dissertation.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e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eck, A. T., Ward, C. H., Menderson, M., Mock, J., & Erbaugh, J. (1967).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 561-571.
- Brown, S. A. (1985). Expectancies versus background in the prediction of college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1), 123-130.
- Cho, H. (2000). *Developing a predictive model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ung, S. K. (2008).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korean college student drink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6(1), 113-134.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90-1005. doi:10.1037/0022-3514.69.5.990.

- Dawson, D. A., Grant, B. F., Stinson, F. S., & Chou, P. S. (2004). Another look at heavy episodic drinking and alcohol use disorders among college and non-college youth.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5, 477-488.
- Gilman, S. E., & Abraham, H. D. (200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order of onset of alcohol dependence and major depression. *Drug and Alcohol Dependence*, 63, 277-286.
- Goldman, M. S., Brown, S. A., & Christiansen, B. A. (1987). *Expectancy theory: Thinking about drinking*. In Blane H.T. and Leonared K. E., eds. *Psychological theory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181-226.
- Gonzalez, V. M. (2012). Association of Solitary Binge Drinking and Suicidal Behavior Among Emerging Adult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6(3), 609-614. doi: 10.1037/a0026916.
- Gonzalez, V. M., & Hewell, V. M. (2012). Suicidal ideation and drinking to cope among college binge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37, 994-997.
- Han, S. Y., Lee, M. K., & Shin, H. C.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risk factors on drink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7(4), 1003-1019.
- Harrell, Z. A. T., Slane, J. D., & Klump, K. L. (2009). Predictors of alcohol problems in college women: The role of depressive symptoms, disordered eating, and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Addictive Behaviors*, 34, 252-257.
- Jeong, W. C. (2006).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mpa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1), 347-372.
- Johnson, L. D., O'Malley, P. M., Bachman, J. G., & Schulenberg, J. E. (2009). *Monitoring the future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1975-2008: Volume II, College students and adults ages 19-50* (NIH Publication No. 09-7403). Bethesda, MD: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 Kim, S. J. (1996). *Modeling relapse of alcoholism: Male alcoholic in-patients of psychiatric war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B. O., Lee, C. H., Lee, P. G., Choi, M. J., & Namkoong, K. (2000).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4(2), 83-92.
- Lee, J. H., & Choi, H. I. (2010). The effects of alcohol expectancies on alcohol-related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inge drinking as a mediating factor. *Studies on Korean Youth*, 21(4), 229-246.
- Lee, Y. H., & Song, J. Y.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98-113.
- Nam, K. A. (2009). An Investigation into psychosocial variables associated with alcohol-relate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4), 501-511.
- Park, K. B., & Shin, M. S. (1990). College goal and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1), 20-32
- Park, S. Y. (2008).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 Schaffer, M., Jeglic, E. L., & Stanley, B.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behavior, ideation, and binge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2, 124-132. doi: 10.1080/13811110701857111.
- Shin, M. S. (1992).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Tapert, S., Colby, S., Barnett, N., Spirito, A., Rohsenow, D., Myers, M., & Monti, P. (2003). Depressed mood, gender, and problem drinking in youth.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Substance Abuse*, 12(4), 55-68.
- The Kor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2010). *The actual condition of drinking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Seoul: S&Y.
- Yoon, M. S., & Lee, H. 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job prepar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 Youth Research*, 19(3), 109-137.